

남북의 김기림을 넘어서*

김재용**

〈차 례〉

1. 1980년대 탈냉전의 기류와 남북에서의 김기림 해금
2. 남에서의 김기림
3. 북에서의 김기림
4. 비서구 약소국의 근대성과 남북협상과로서의 김기림

[국문초록]

1980년대에 남북에서 그동안 억압되었던 작가들에 대한 해금이 진행되었는데, 북한에서는 1984년에 남한에서는 1988년에 많은 작가들이 풀려나 널리 읽혀졌다. 남북 모두에서 금지되었던 정주용과 김기림이 이 시기에 읽히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김기림은 매우 문제적이다. 한국전쟁 시기에 한반도에서 갑자기 사라진 김기림은 해방직후 줄곧 남북협상과로서 활동하였다. 자주적인 통일독립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 김기림은 미국과 소련을 적극 환영하였다. 일본을 제압한 미국과 소련의 힘을 업고 통일독립국가를 만들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후 신탁통치가 시작되자 비판적 지지로 전환하였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새로운 제국의 이익을 잘 알고 있지만 그 길 아니고는 통일독립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이 없기에 비판적 지지를 하였다. 1947년 중반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김기림은 분단이 올 위험성을 감지하고서는 남북협상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일부 지식인들은 소련을 믿고, 다른 일부 지식인들은 미국을 믿으면서 한반도가 급속하게 분단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 김기림은 이 모두를 비판하면서 남북협상운동에 나섰다. 하지만 남북에 분단 국가가 각각 들어서고 나아가 남북협상의 버팀목이었던 김구마저 사망하자 간신히 자신을 지탱하다가 결국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사라져버렸다. 전쟁 이후 남북한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그러다가 1988년 남한에서 김기림이 해금되면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주로 모더니즘의 각도에서 진행되었다. 1984년 이후 김기림은 북한에서도 해금되었는데 주

* 이 논문은 2022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원광대 교수

로 민족적 향토적 측면에서만 다루어졌다. 남북에서 행해진 이러한 김기림 이해는 1930년대 이후 유럽 근대를 비판하면서 비서구 식민지의 세계사적 가능성을 탐구하였고 이 연장선에서 남북협상운동을 벌였던 김기림과는 잘 맞지 않다. 1차대전과 2차대전 이후 유럽의 위기를 감지하고 그 대안을 탐색하였던 김기림의 세계 이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 근대성과 제국의 근대성에 대한 그의 미학적 대응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주제어] 김기림, 제국주의 근대성, 모더니즘, 향토성, 해금

1. 1980년대 탈냉전의 기류와 남북에서의 김기림 해금

1980년대 한반도에는, 소련의 붕괴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탈냉전의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한국전쟁의 참상을 겪은 후 내부적으로는 냉전적 대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 반성은 매우 미미하였다. 남북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냉전적 대립 구도를 유지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트남전쟁과 체코 민주화운동으로 대표되는 양 진영에서 벌어지는 국제적 차원의 냉전 해체는 간접적으로 남북 민중의 각성으로 이어졌다. 밑으로부터의 이러한 압력에 남북의 국가 권력은 이전 냉전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1980년대 남북에서, 아무런 상호관련 없이, 일어난 작가 해금은 그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북은 남보다 좀 이른 시점인 1984년에 작가들을 풀었다. 이인직, 이광수, 김소월, 최남선, 정지용, 심훈, 한용운, 한설야, 최명익 등이 이 명단에 들었다. 연구자들의 즐기찬 문제제기에 당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 결정은 이후 북의 문학장에서 활기찬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바람은 문학사론과 문학선집 두 방향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북의 문학사가들은, 이들 작가들을 제외한 채 문학사를 서술하여야 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혔어야 했는데 이제 이러한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다소 자유롭게 문학사를 서술할 수 있었다.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는 이러한 정전의 변화에 호응하여 새로운 문학사를 서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지만 짧은 시간에 이를 행할 수

없어서 다소 개론적인 문학사론인 『조선문학개관』 1권과 2권을 1986년에 펴냈다. 이 책에는 1984년에 해금된 작가들 이인직, 이광수, 최남선, 김소월, 한용운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소속인 리동수는 『우리나라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연구』(1988)라는 책을 통하여 김소월 한용운 등을 적극적으로 문학사 속에서 끌어들이었다. 비판적 사실주의의 미학적 범주 틀 속에서 이들 작가들을 끌어들이어 적극적으로 해석하였다.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와 짝을 이루고 있는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에서도 이 새로운 정전의 변화를 수용하는 적극적인 문학사론을 펴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1986년에 출판된 은중섭의 『조선근대 및 해방전 현대소설사연구』 1권과 2권이다. 은중섭은 이 소설사에서 그동안 북한에서 금지되었다가 풀려난 소설가들을 광범위하게 끌어들이어 해석하였다. 1984년 행해진 북한의 해금과 정전의 변화에 응답한 것은 비단 문학사론 해석만이 아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현대조선문학선집』의 출간이다. 1987년부터 출간된 이 선집은 바로 새롭게 변화된 정전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인직을 비롯한 많은 작가들을 수용하였다. 현재 일제 강점기의 것은 완간되어 북한의 문학장과 일반 독서계에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남에서는 1988년에 들어 재월북 작가들이 해금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 일부 단체들에 의해 정지용 김기림의 해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재월북 작가에 대한 공식적인 해금은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에 이르러서야 단행되었다. 북한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작가들에 대한 해금은 유보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전면 해금이었다. 이후에 남한 문학계에서는 그동안 금지되었던 작가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고 출판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개인들에 의한 문학사 서술이 출판되었는데 『한국근대민족문학사』(1993)는 이러한 정전변화에 대한 연구자들의 응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문학사 서술인 이 저술 이외에도 술하게 많은 문학사론적 저서와 글이 제출되었다. 또한 이태준 전집을 비롯하여 해금된 개별 작가들의 문학전집 혹은 선집이 출간된 것도 특기할 일이다. 정전의 변화에 호응하여 전집 혹은 선집 형태의 출판도 나와 개인별 전집과 어울리게 되면서 한층 풍부해졌다.

1980년대 들어 남북에서의 작가 해금은 탈냉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직후 극단적인 냉전적 대립이 전쟁으로 귀결되면서 한반도에서의 냉전은 한편으로는 한층 심화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의 세계해석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1차대전 이후 소련에서의 레닌의 민족해방론, 미국에서의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서 시작된 미소에 대한 동경과 선망은 해방직후 가장 고조화되었지만 전쟁으로 인하여 그 허상이 드러나기도 하였던 것이다. 영국, 프랑스, 일본의 제국주의와는 다르리라고 믿었던 미국과 소련이 해방군으로 진주하였지만 조선의 통일독립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영향권만을 확장하는 행태를 보면서 기존의 구미중심적 세계인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결코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미소를 따르는 한반도 남북의 정권의 권력 속성 탓에 표면화되기 어려웠고 지하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적 차원에서의 냉전의 폭력이 드러나면서 탈냉전의 기운은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 남북에서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이렇게 기존의 금지된 작가들을 해금한 것은 그러한 흐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금지된 작가들이 이 시기에 풀려난 것은 남북 각각 더 이상 과거의 냉전적 틀로 이들 작가들을 억압할 수 없을 만큼 밑으로부터의 큰 압력이 존재했다는 것을 말한다.

남북의 작가 해금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벌어진 문학유산의 통합은 해금된 작가들을 중심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남에서는 줄곧 평가를 받았지만 북에서는 1980년대 해금 이후에야 비로소 평가를 받기 시작한 작가군이다. 염상섭, 심훈, 채만식, 윤동주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작가들은 한국전쟁 이후 남에서는 줄곧 평가를 받았지만 북에서는 금지된 작가였다. 둘째는 북에서는 줄곧 평가를 받았지만 남에서는 그러하지 못하였던 작가군이다. 이기영, 이용악 등은 북에서는 거의 변동없이 평가받은 작가이지만, 남에서는 해금 이후에야 비로소 평가를 받았던 이들이다. 세 번째는 남과 북 모두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다가 비로소 1980년대에 이르러 남북 모두에서 평가를 받은 작가군이다. 여기에 속한 이로는 정지용과 김기

림을 들 수 있다. 한국전쟁과 함께 한반도에서 사라졌던 김기림이 시차를 두고 남북에서 해금되어 문학적 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김기림이 남북에서 어떤 과정과 미적 기준에 의해 복권되었는가를 가급적 상세하게 규명할 것이다. 나아가 현재 남북에서 동시에 몰각되고 있는 해방직후 김기림의 남북협상과 문인으로서의 면모를 바탕으로 향후 어떤 방향으로 김기림이 평가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미래지향적인 측면도 아울러 살피고자 한다.

2. 남에서의 김기림

1988년 해금 이후 가장 주목을 받은 이가 정지용과 김기림이다. 이 두 문인은 한국전쟁 이후 종적을 감춘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재일북 작가와는 사정이 달랐다. 재일북 작가들은 그 사연과 과정이 어찌하였든 궁극적으로 북한에서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정지용과 김기림처럼 북한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김기림과 정지용은 공식적인 해금 이전부터 주목을 받았다. 1983년 이후 한국문인협회가 정지용과 김기림의 해금을 정부에 건의하였던 것도 이러한 사정에 기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금 이후 정지용과 김기림은 다른 해금 작가들에 비해 주목을 크게 받았다.

그런데 정지용과 김기림은 주목을 받는 각도가 좀 달랐다. 정지용은 주로 순수문학적 차원에서 조명을 받는 반면, 김기림은 순수문학보다는 모더니즘의 각도에서 주목을 받았다. 물론 정지용도 시간이 흐르면서 모더니즘의 측면에서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순수문학으로 정지용을 평가하는 시각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지 처음부터 그러하였던 것은 아니다. 『문장』에서 정지용으로부터 추천받았던 청록과 시인들이 해방 직후 좌우 문학논쟁 시기에 정지용을 순수문학의 대가로 전유하였던 것이 이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에 반해 김기림은 처음부터 순수문학적 측면보다는 모더니즘적 측면에서 조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의 원칙은 현재까지도 남

에서 김기림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김기림을 모더니즘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남한의 문학계가 주로 미학적 기준으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틀 속에서 한국근대문학을 바라보는 시각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분단 이후 형성된 순수문학적 시각은 1960년대 이후 현저하게 사라지고, 이를 대신한 것이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틀이었다. 근대성의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었던 김기림의 시와 비평을 리얼리즘으로 명명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진 이들은 그를 모더니즘의 틀로 접근하였다. 그리하여 김기림을 모더니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견해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대부분의 연구가 김기림의 시와 비평을 모더니즘의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이기에 김기림이 일제말 특히 2차대전 이후와 해방직후에 보여 주었던 고민은 거의 도외시될 수밖에 없었다.

영문학을 전공하였던 김기림은 1차대전 이후 유럽 문학의 지각변동에 큰 관심을 두었다. 유럽을 지탱하였던 이성과 문명이 1차대전을 거치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나온 유럽의 제반 문학적 노력과 기획을 매우 신선하게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이 다양한 새로운 시도들을 읽어나가면서 자신의 길을 모색하였던 김기림에게 2차대전이란 것은 유럽 근대와 근대적 미학들의 과묵으로 비쳐졌다. 1차대전 이후 유럽의 다양한 문인들의 모색과 기획들마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김기림은 기존의 유럽 작가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접고 새로운 세계 즉 비유럽 지역 특히 제국주의 근대의 피해자인 식민지 지역과 나라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즉 근대성이 아닌 제국주의 근대성에 대해 주목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학적 방향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지향은 해방 이후 한층 역동적으로 전개된다. 해방직후 열린 조선문학가동맹 결성대회에서 한 연설 『우리 시의 방향』은 이러한 인식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낸 글이다.

우리는 일찍이 이번 전쟁이 일어나던 1939년에 이 전쟁이야말로 ‘르내상스’에 의하여 전개되기 시작했던 ‘근대’라는 것이 한 역사상의 시대로서 끝을 마치고 그것이 속에 깃들인 못 모순과 불합리 때문에 드디어 파산할 계기라고 보았으며 또

계기를 만들어야 되리라는 견해를 표명한 적이 있다. 문화의 면에 있어서는 ‘근대’는 그 지나친 ‘아나르시’의 상태 때문에 대량적으로 한편에 있어서는 무지와 빈곤의 압도적 횡일(橫溢)의 결과 정신의 황무지가 남아있는데 다른 한편에는 문화적 과잉으로부터 오는 정신의 낭비와 퇴폐가 퍼져가고 있는 불균형을 가져왔던 것이다. 문화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도 근대는 이런 전쟁을 통하여 스스로의 처형의 하수인이 되었던 것으로 알았다. 우리들의 신념은 오늘에 있어서도 그것을 수정할 아무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오늘 전후의 세계는 물론 ‘근대’의 결정적 청산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또 이 나라 아에서만 해도 8.15 이후 오늘까지 이르는 동안의 혼란한 정치적 정세는 우리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세계의 탄생의 진통으로만 보기에는 너무나 병적인 데가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장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한 근대의 반복을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근대를 부정하는 새로운 시대가 지구상의 어느 지점에 시작되어도 상관없을 것이다. 세계사의 한 새로운 시대는 이 땅에서부터 출발하려 한다. 또 출발시켜야 할 것이다. 봉건적 귀족에 대하여 한 근대인임을 선언하는 것은 ‘르네상스’인의 한 영예였다. 오늘에 있어서 다시 초근대인임을 선언하는 것이야말로 새 시인들의 자랑일 것이다.¹⁾

2차대전이 발발한 직후 김기림은 근대의 파산을 이야기하면서도 일본이 동양을 내세워 근대를 초극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여건이 여의치 않자 침묵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해방직후의 이러한 진술은 매우 진지하면서도 역사적인 관찰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하였기에 더욱 구미에서 벗어나 비서구 식민지의 현실에 강한 자의식을 갖게 되었다. 조선을 구미와의 관계에서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이제 비서구 식민지의 나라들과의 연대 속에서 지구적 현실을 보기 시작하였다. 미소공위가 시작되자 미국과 소련 그 어느 편에 서지 않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주어진 현실의 한계를 감안하여 이들을 지지하였는데 이 역시 세계사를 보는 새로운 역사적 시각에서 가능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미소공위가 결렬된 이후에는 미국

1) 김기림, 『우리 시의 방향』, 『시론』, 백양당, 1947, 201~202쪽.

과 소련에 대한 그 동안의 비판적 지지를 철회하고 남북 협상에 의한 통일독립을 희구하는 남북협상과 핵심적인 문인이 되었다.²⁾ 정지용 염상섭과 더불어 남북협상운동을 지지하는 문인이 되었던 김기림은 근대성에 대한 단순한 자각 대신에 이제 제국적 근대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

김기림의 이러한 미학적 도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초기의 김기림 즉 1차대전 이후 새롭게 미적 대응을 하는 유럽의 문학인들을 주목하고 이를 따르려고 했던 것만을 갖고 모더니즘의 문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1차대전 이후의 유럽의 신진 문인들의 미적 대응과 양식에 맞을 내리고 자신의 미학적 진로를 모색하던 초기의 김기림과 해방직후 제국의 근대성에 대한 고민 속에서 남북협상과 문인으로 비서구 식민지와의 연대를 추구하던 김기림과는 현저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김기림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3. 북에서의 김기림

1984년 이후 북한문학계의 정진 변동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평가의 미적 기준의 다양화이다. 그 이전만 해도 북한문학계를 지배하던 미학적 기준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비판적 사실주의의 틀이었다. 카프 문학을 비롯한 사회주의 지향의 문학은 사회주의 사실주의로 판단하고, 그 외의 문학 중에서 민족문학유산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는 비판적 사실주의로 취급하였다. 그리고 이 범주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예술지상주의 혹은 퇴폐주의라고 비판하면서 배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법은 근대문학의 다기한 움직임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졌다. 특히 비판적 사실주의로 분류한 일제 강점기 작가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문학사 서술이나 평가에서는 비판적 사실주의라는 틀을 사용한

2) 김재용, 「남북협상과 문인으로서의 김기림」, 『영주어문』 51집, 2022.06.

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평가에서는 민족적인 것 혹은 향토적인 것을 강조하게 마련이다. 그 대표적인 이가 김소월이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사실주의와 비판적 사실주의의 틀이 주된 미학적 기준으로 자리잡게 되는데 이것으로 보면 김소월은 결코 비판적 사실주의 작가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소월은 북한문학계에서 한동안 제외되었다. 하지만 1956년 제2차 작가회의 이후 기존의 경직된 도식주의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하면서 김소월은 재평가 받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그를 끌어들이는 기준은 역시 비판적 사실주의였다. 이때부터 김소월은 비판적 사실주의 작가로 평가받기 시작하였고 문학사의 서술에서 항상 비판적 사실주의의 중요 작가로 기술되었다. 김소월을 문학사적으로 복권시키면서 가장 높이 평가한 안함광의 다음과 같은 문학사적 서술은 이를 잘 보여준다.

3.1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현실발전의 새로운 정세에 조응하여 프롤레타리아문학이 문학 발전의 기본 동력으로 등장했고 그것은 새로운 창작방법-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길을 개척해 나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3.1분기 이후 진보적 문학계열에 있어서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유일한 창작방법으로 될 수는 없는 일이었다. 3.1분기 이후의 우리나라 현실의 새로운 역사적 발전은 자체 속에 복잡하며 다면적인 생활을 내포하였다. 3.1분기 이후 복잡한 전환기는 진보적 문학 예술인들 앞에 반침략 방공건이라는 일반적 시대적 과업을 제시하였으며 그에 대한 예술적 해답을 위한 다양한 탐구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여기에서 노동계급이 역사적 무대에 등장한 이후 시기라 하더라도 계급사회의 조건에서는 비판적 사실주의도 자기 한계 내에서 충분히 진보적 역할을 논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중략-인용자) 이 시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과 공존하여 왔는 바 전자의 계열에는 작가 나도향, 시인 김소월 등이 서 있었다.³⁾

3) 안함광, 『조선문학사』, 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64, 49~50쪽.

그 동안 무시되었던 김소월을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안함광이 사용한 미학적 틀은 비판적 사실주의였다. 1920년대 이후 주를 이루었던 카프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틀을 인정하면서도 김소월과 같은 시인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 비판적 사실주의를 끌어들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 사실주의와 공존하는 비판적 사실주의의 틀을 사용하지 않는 한 김소월 등 많은 문학인들의 유산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작 김소월에 관한 구체적 서술에서는 비판적 사실주의라는 틀은 온 데 간 데 없어지고 전혀 다른 문맥 즉 민족적인 것 향토적인 것으로서의 애국적인 것이 등장한다.

그의 서정시들의 일반적 색조는 한마디로 말하여 잃어버린 고귀한 것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하여 모대기치는 인간의 내면적 미이며 사람들의 정신을 자극하는 애국적 인민성이다. 그의 시적 감정 가운데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주축으로 하면서 항상 절절한 것, 고결한 것, 섬세하면서도 완강한 것, 지혜로운 것, 정열적이면서도 단아한 것, 그리고 다감한 향기로운 그 어떤 것들을 그윽한 서정성과 음악성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바로 여기에 소월 시의 개성적 특성, 독자적 매력이 있다.⁴⁾

안함광의 김소월 평가에서 드러나는 비판적 사실주의와 애국적 인민성 간의 긴장은 이후 북한문학계에서 모든 근대문학유산을 평가할 때 항상 그 기저를 흘렸다.

그런데 1984년 이후 많은 작가들을 새롭게 평가하고 문학 유산을 넓힐 때 이러한 긴장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웠다. 과거 일제시대 많은 작가와 작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민족문학유산으로 끌어들이야 하는데 이 비판적 사실주의 틀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따라서 비판적 사실주의의 틀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작가들을 평가할 수 있는 미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급

4) 위의 책, 185~186쪽.

선무였다. 이 새로운 기준이 바로 민족적이라고 하는 미적 틀이다. 안함광만 해도 내면적으로는 비판적 사실주의에 구애받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지만 외면적으로는 비판적 사실주의의 틀을 내걸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와서는 더 이상 이러한 지적 습관을 유지하지 않게 되었다. 사실 사회주의 사실주의와 비판적 사실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만을 문제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같이 식민지를 겪은 나라들에서는 잘 설명되지 않는 대목들이 많았다. 이러 점들을 고려하여 만든 것이 민족적인 것 혹은 향토적인 것의 범주를 만들고 이를 작가와 작품을 평가하는 미적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이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서 많은 작가들이 정전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사회주의 사실주의와 비판적 사실주의의 틀로서는 해명할 수 없기에 제외되었던 작가와 작품들이 민족적인 것 향토적인 것 속에서 새롭게 부각되었던 것이다. 1984년 이후 새롭게 정전으로 편입된 작가들 예컨대 정지용, 백석, 오장환 등의 작가들에 대한 문학사적 평가도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였다.

김기림이 북한 문학계에서 정전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러한 변화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기존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비판적 사실주의 짝개념으로는 김기림을 평가할 수 없었다. 그런데 민족적인 것 향토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김기림의 시의 어떤 부분들은 충분히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04년에 출판된 『현대조선문학선집27권-1930년대 시선(2)』에 수록된 김기림의 시는 민족적인 것과 향토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지용의 경우 『현대조선문학선집』에 많은 편수의 작품이 수록됨과 아울러 그에 대한 길지 않은 평가를 곁한 해설이 있기에 어느 정도 수록 기준의 미적 기준을 짐작할 수 있지만 김기림의 경우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수록된 작품을 자세하게 검토하면 그 미적 기준을 어느 정도는 헤아릴 수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민족적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시들이다. 「태양의 풍속」과 「연륜」이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들이다. 「태양의 풍속」을 민족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연륜」은 아주 분명해 보인다. 이 작품은 일제말 『춘추』 잡지 1942년 5월에 실

린 작품으로 김기림이 고향 경성으로 내려가기 전후하여 발표한 거의 마지막 작품이다. 당시 적지 않은 이들이 친일을 하는 마당에 김기림은 자신의 살아온 궤적을 밑거름으로 삼아 의연하게 버텼다. 특히 2차대전이 발발하면서 서구 근대가 파산하게 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일본과 아시아로 귀환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김기림은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지 않았다. 함께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평론을 겸하였던 최재서가 2차대전과 파리 함락을 보면서 근대의 종언을 선언하고는 일본과 동양에 깊이 빠져들어 친일 협력을 했던 것을 고려했다면 김기림의 이러한 견딤은 그 내공이 만만치 않은 것이었다. 바로 이 때의 심정을 노래한 것이 시 「연륜」이다. 그런데 이런 작품을 수록한 것을 보면 김기림이 이 선집에 수록되는 기준이 바로 민족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관북기행단장」 연작을 수록한 점이다. 이 연작은 조선일보 1936년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연재된 작품으로 총 19편⁵⁾으로 김기림의 어떤 시집에도 실리지 않았다. 북한의 『현대조선문학선집』에서는 19편 중에서 「밤중」과 「출정」 두 편만 빼고 모두 수록하였다. 이처럼 김기림의 시가 몇 편 들어있지 않은 마당에 이 연작 대부분을 『현대조선문학선집』에 수록한 것은 북한의 연구자들이 김기림을 어떤 각도에서 보고 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김기림이 자신의 고향인 함경북도 경성을 방문하고 쓴 시들인데 여기에는 관북 지역뿐만 아니라 두만강 건너 간도가 갖는 국경도 등장할 만큼 복합적인 시이다. 우리 시에서 가끔은 등장하지만 그렇게 흔하지 않은 관북의 정서를 잘 대변한 이 시는 향토적인 것으로 전유되었다. 김기림 스스로 이 연작시의 제목을 「관북기행단장」이라고 붙인 것을 보면 자신이 관북의 습속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아주 분명함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북한의 연구자들이 그 많은 근대성을 다룬 김기림의 시를 한 편도 수록하지 않으면서 이 연작을 두드러지게 수록한 것은 향토적인 것을 중요한 미적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알 수 있다.

5) 신문상에는 20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7이 빠져있어 총 19편이다. 당시 신문사 편집의 실수 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4. 비서구 약소국의 근대성과 남북협상과로서의 김기림

남과 북의 김기림 복원에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은 각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배해온 미학적 기준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남의 문학계를 알게 모르게 조건 지웠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미학적 틀에서 김기림을 평가하려다보니 매우 부자연스러운 결과가 초래되었다. 근대성에서 출발하여 제국주의 근대성으로까지 인식이 나아갔던 김기림을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둘 중에서 고르다 보니 모더니즘론으로 김기림을 평가하게 되었는데 이 역시 김기림의 한 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김기림의 전 문학적 도정을 접근하는 데에는 현저하게 미치지 못한다. 특히 2차대전 이후 유럽의 근대와 일정한 거리를 두었던 일제말과 민족문학을 논하던 해방 후의 김기림의 문학을 설명하는 데에는 모더니즘론이 전혀 맞지 않다.

북한에서 김기림을 복원할 때 문학계의 논자들은 기존의 북한 문학을 지배하던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비판적 리얼리즘이라는 틀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다. 전쟁 이후 본격화된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비판적 리얼리즘이라는 미학적 틀은 근대문학 유산을 평가할 때 족쇄가 되었다. 카프 계열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중심에 놓고 그 외 것을 비판적 리얼리즘의 틀에서 평가하고자 했을 때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배제된다. 특히 구인회 계열의 작가들은 더욱 그러하였는데 김기림은 이런 차원에서 배제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1984년 이후 근대문학 유산의 폭을 넓히려는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기존의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비판적 리얼리즘이라는 틀을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민족적인 것 혹은 향토적인 것이다. 식민지라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데서 나온 이러한 기준을 끌어들이면서 그동안 배제된 많은 작가들이 문학유산에 편입되기 시작하였다. 김기림 역시 이러한 북한 문학계의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역시 많은 한계를 갖는다. 김기림은 누구보다도 근대성과 제국주의 근대성을 천착한 작가이다. 그러데 이를 단순히 민족적인 것 혹은 향토적인 것으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 역시 매우 일면적임을 면할 수 없다.

유럽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비서구 약소국의 근대를 천착하였던 해방직후의 김기림은 그의 문학적 도정에서 특히 중요한데 이러한 것까지 포함하여 그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우 긴요하다. 분명한 것은 그동안 남북에서 제기되었던 것들은 매우 일면적이라 일정하게 참고는 되지만 그 핵심을 찌르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제국주의 근대성은 그런 점에서 매우 시사적일 수 있다. 근대성을 천착하였던 김기림의 문제의식을 살리면서도 유럽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한 그의 후기 노력까지 감싸 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향후 김기림을 우리 근대의 문학적 유산으로 편입시키는 문제는 우리 자신들의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는 치열한 지적 노고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정구·김종희, 『해방기의 김기림 비평에 나타난 민족 기표의 양상』, 『한국문예창작』 제11권 3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2, 233~257쪽.
- 김유중, 『김기림의 역사관, 문학관과 일본 근대 사상의 관련성 : ‘근대의 초극’론의 극복을 위한 사상적 모색 과정에 대한 검토』,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6집, 한국현대문학회, 2008, 245~278쪽.
- _____, 『해방기 김기림의 문학 활동과 이념 노선에 대한 일 고찰 : 김기림과 여운형』,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8집, 한국현대문학회, 2016, 291~328쪽.
- 김예리, 『1930년대 모더니즘 문학의 존재미학과 탈근대적 사유 : 김기림의 ‘시의 회화성’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제42집, 한국시학회, 2015, 49~44쪽.
- 김정현, 『김기림 初期 텍스트에 나타난 ‘政治性’과 ‘美學性’의 교차양상 研究』, 『어문연구』 제47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9, 319~357쪽.
- 김지울, 『김기림의 ‘기상도’에 드러나는 헤테로토피아와 다중적 시선』, 『우리말글』 제88집, 우리말글학회, 2021, 267~293쪽.
- 김진희, 『김기림의 초현실주의론과 모더니즘1』, 『한국문학연구』 제52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16, 355~394쪽.
- 박주택, 『김기림 시의 근대와 근대 공간 체현』, 『비교한국학』 제27권 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9, 277~308쪽.
- 육승이, 『김기림 문학에서의 근대 표상 재고 - ‘대건축’과 ‘대양(大洋)’의 기표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100집, 어문연구학회, 2019, 317~344쪽.
- 이진형, 『일제 말기 ‘역사’ 담론의 아포리아와 그 초극의 문제 : 임화와 김기림의 역사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9집, 한국근대문학회, 2014, 161~197쪽.
- 정영훈, 『해방 후 김기림의 한글 전용 논의에 대하여(I) - 논의의 맥락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44집, 우리어문학회, 2012, 623~656쪽.
- 차성연, 『김기림 비평에 나타난 해방 전후의 연속성과 탈근대적 사유 방식 : 초기 시론과 『시의 이해』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55집, 우리문학회, 2017, 351~376쪽.
- 최명표, 『해방기 김기림의 정치의식』, 『비평문학』 제31집, 한국비평문학회, 2009, 297~317쪽.
- 홍기돈, 『정지용의 산수시 이해와 주체 재구성의 문제 - 「長壽山 · 1」, 「長壽山 · 2」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22권, 2011.08, 119~139쪽.

Revisiting Kim Ki-rim beyond North and South Korea

Kim Jaeyong*

In the 1980s, the lifting of the ban on writers who had been suppressed by North and South Korea was carried out, and many writers were released in 1984 and 1988 North Korea and South Korea separately. Jeong Ji-yong and Kim Ki-rim, who were banned from both the north and south, began to be read during this period, Kim Ki-rim, who served as an inter-Korean negotiator shortly after liberation suddenly had disappeared from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Korean War, Kim Ki-rim, who thought it was necessary to create an independent unified and independent state, welcomed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They tried to create a unified and independent state with the power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that defeated Japan. However, when the trust rule began after the Moscow Triad, it switched to critical support. Although he was well aware of the interests of the new Empir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he gave critical support because there was no realistic way to achieve unification and independence. When the U.S.-Soviet Union Joint Committee broke down in mid-1947, Kim Ki-rim sensed the risk of division and actively launched an inter-Korean negotiation movement. Some intellectuals believed in the Soviet Union, others believed in the United States, and when the Korean Peninsula was rapidly on the verge of division, Kim Ki-rim criticized all of them and launched an

* Wonkwang University, Professor

inter-Korean negotiation campaign. However, when the divided countries were established in the two Koreas, and even Kim Gu, who was the main person of the inter-Korean negotiations, died, he managed to support himself and eventually disappeared in the process of the Korean War. After the war, he was a completely forgotten in the two Koreas. Then, in 1988, when Kim Ki-rim was lifted from South Korea, a lot of research was conducted, mainly from the angle of modernism. Since 1984, Kim Ki-rim has also been lifted in North Korea, and been read mainly in terms of ethnic and local aspects. This understanding of Kim Ki-rim, conducted by the two Koreas, could not explore the possibility of world history of non-Western colonies. Kim Ki-rim's world understanding of the European crisis and exploring alternatives after World War I, should be read in consideration of the global outlook, including non-Western colonies, on the basis of imperial modernity and imperial modernity.

Key words: Kim Ki-rim, Imperial modernity, Modernism, Locality, Lifting of Ban